



### 복지법인 삼동회, 무주군에 1350만원 성금 기탁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24일 무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13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삼동회 신하 86개 시설 3천명이 모금에 동참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한면을 더하고 있다.

이들은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산불 피해지역 주민과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유희영 이사장은 “삼동회는 원불교 삼동운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전해지는 마음은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1981년 설립된 삼동회는 ‘세상의 모든 이는 그 근본이 하나이고, 전 인류는 한 가족이며, 모든 사업의 목적은 같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활동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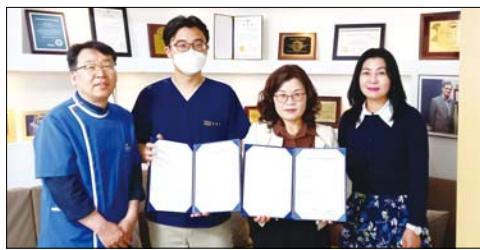


### 남부안농협,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공급 추진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과 부안군 농업정책과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도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2025년 사업으로 총 50명의 계절근로자를 선발해, 3월에 1차로 19명이 입국, 4월에 2차로 30명이 인천공항에 추가 입국했다. 남부안농협은 해당 사업을 도입하여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올해는 한층 체계적인 운행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주기로 입국한 30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사전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농작업에 투입되어 지역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기자



### 남원 동충동·명인치과, 재능기부 의료협약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자남)는 명인치과(원장 정학현)와 24일, 관내 주민을 위해 연 1명의 대상자를 선정 집중으로 지원하는 치과의료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통해 치과 진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발굴 명인치과가 자부담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 후속 관리까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고창경찰, 고수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총경 한도연)는 지난 22일 고창 고수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예방교육은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의 유형과 차별, 학교 폭력 신고 방법, 철자 등을 교육했다.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의 종류 및 대처·신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퀴즈풀이 시간을 통해 홍보 물품을 나눠주었으며, 언어도 폭력, ‘친구가 되어줄께’, ‘학교폭력신고 117’ 등 문구코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는 활동 또한 병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족한마당’ 행사

정읍산림조합, 가정의 달 맞아 ‘제1회 노래경연대회’ 개최… 들꽃사랑 작품 전시와 병행

정읍산림조합(조합장 최봉관)  
이 2025년 5월 가정의 달 맞아

### 가정의 달 정읍산림조합 가족한마당 제1회 노래경연대회

2025.5.17(토)  
10:00~17:00  
정읍산림조합 회원정원  
노래자랑·사진선정경품·장터·민족문화  
등장기념 4월21일~5월12일  
문의: 정읍산림조합 (063-570-7500)

체로, 이번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문화적 역량을 선보인다. 20여 점의 다양한 작품이 희망 정원 내에 전시돼,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정읍산림조합은 조합장 취임 이후 꾸준히 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합의 공간을 문화공연,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개방해 지역민의 휴식과 여가 강화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 역시 조합이 지역 공동체 소통의 통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읍산림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와 문화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 장수군,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장수군은 24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군장애인연합회(회장 한강)가 주최하고 주관했으며 최훈식 군수를 비롯한 각 기관사회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지원봉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자리 빛냈다.

법정 지정일인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기념해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그들이 서로 다른 이해하고 존중하는 희망과 행복을 염두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선언문 낭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재확인했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남원시, 제95회 춘향제 꽃 경관 조성 총력

남원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심 전역의 꽃 경관 조성을 마무리하고,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요천변 꽃단지 내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대형 꽃 조형물을 설치, 춘향제의 상징성과 예술적 감각을 결합한 대표 경관 랜드마크를 완성했다.

아울러 페츄니아, 메리골드, 루피아스 등 약 28만본에 달하는 봄꽃을 식재하고 미러볼 및 색다른 꽃 조형물, 꽃 화단을 함께 배치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솔지·유류부지 내 3㏊에 달하는 유채꽃 등 균락을 중심으로 액자형 포토존, 향이·몽이 조형물 등 총 7개소의 포토존을 조성, 순간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감성 공



간으로 변화시켰다.

시 관계자는 “춘향제가 문화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은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의산시-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상호협력 강화

자매도시인 의산시와 경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돋구하고 있다.

의산시는 NH농협 경주지지부와 경주지역농협이 의산시 고향사랑기부제에 4,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정현을 의산시장과 진현숙 NH농협 의산시지부장을 비롯해 김정식 NH농협 경주지지부장, 김재호 동경주농협조합장, 김영도 불국사농협조합장, 김병철 신경주농협조합장 등 경주 축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와 함께 NH농협 의산시지부와 의산지역농협도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에 4,000만 원을 기부해 양 도시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기부는 의산시와 경주시가 자매도시로서 오랜 기간 이어온 우정과 협력을 나타내는 뜻깊은 행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작과 함께 시작한 두 도시 농협 간 상호기부는 3년째 이어지며, 따뜻한 지역 연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서로의 도시를 응원하고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두 지역 농협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김정식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공감한 경주시 농협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의산시를 응원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현은 시장을 “농협의 꾸준한 참여와 따뜻한 나눔 덕분에 의산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관심을 받으며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산=이재준 기자



### 김성용·김건업 씨, 무주군에 각각 장학금 기탁

부자간인 무주읍발전협의회 김성용 회장과 (유)삼삼건설 대표 김건업 씨가 24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사비로 각각 1백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김성용 회장은 “무주에서 나고 자랐고 또 세 아들을 모두 고등학교까지 무주에서 가르쳤다”라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 무주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내놓게 됐다”라고 전했다.

아들 김건업 씨는 “고향 무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학창 시절에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후배들과 나누고 싶어 장학금 기탁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삼삼건설은 무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회사다.

/무주=전문선 기자



### 홍동표 씨, 고향 임실군에 고향사랑 200만원 기탁

신평면 출신의 출신인 홍동표 씨가 지난 16일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0만원을 기탁했다.

홍 씨는 신평면 대리 출신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서둘로 상경한 뒤 현재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며 건축도장공사를 운영하고 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는 고향 임실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한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역에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물 등 담례품을 받을 수 있다. 임실군은 기부금을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홍동표 씨는 “항상 고향 임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도통동, 남원초밥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등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24일,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착한가게 기부에 동참한 남원초밥(대표 김상원)에 사랑의 열매 ‘착한가게 39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종소규모 자영업 종사자들이 매출액의 일정액을 떼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일컫는다. 착한가게로 선정되면 사랑의 열매 모양이 그려진 현판을 가게 앞에 달아주고 있다.

김상원 대표는 “평소에도 관심 있었던 나눔 활동에 착한가게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